

『全韻玉篇』漢字音의 正音 研究

- 齒音의 濁音 聲母를 중심으로 -

이길경* · 김은희** · 김서영*** · 안영실**** · 류정정*****

목 차

1. 서론	2.3. 全濁 船母
2. 본론	2.4. 全濁 邪母
2.1. 全濁 從母	2.5. 全濁 禪母
2.2. 全濁 崇母	3. 결론

국문초록

본고는 『全韻玉篇』 ‘X正Y’의 X음과 Y음의 성격에 대해 고찰하였다. 『全韻玉篇』 ‘X正Y’의 표기에서 X음과 Y음은 四聲七音을 바탕으로 한 漢語 中古音과의 비교를 전제로 고찰을 진행했다. 편폭의 제한으로 『全韻玉篇』에서 ‘X正Y’로 표기된 漢字 중 四聲七音의 齒音 全濁 성모에 속하는 漢字만 한정하여 해당 漢字들의 X음과 Y음의 표기 특징에 대해 분석하고 각각의 음운적 특징에 대해 정리하였다. 연구결과 『全韻玉篇』에서 ‘X正Y’로 표기된 漢字 중 全濁 성모에 해당하는 漢字들의 표기에서 崇母를 제외한 從母, 船母, 邪母, 禪母에 해당하는 漢字들의 X음은 모두 濁音의 淸音化된 어음을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X음이 반영한 어음의 음운체계에서 해당 성모들이 濁音의 淸音化가 이미 완성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었다. X음은 모두 濁音

* 주저자: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수료

** 교신저자: 제주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부교수

*** 공동저자: 제주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박사

**** 공동저자: 제주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박사

***** 공동저자: 제주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박사수료

의 淸音化를 표기하는 규칙성을 보이는 것에 비해 Y음은 又音, 聲符, 異體字, 諧聲字, 中古音을 표기하는 다양성을 보여 체계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키워드: 全韻玉篇, 正音, 齒音, 規範音, 濁音, 淸音化

1. 서론

『全韻玉篇』은 訓民正音으로 韓國 漢字音を 반영한 최초의 玉篇이다. 『全韻玉篇』은 『奎章全韻』을 바탕으로 편찬되었으며 『奎章全韻』의 規範音과 당시 韓國 漢字音의 통용음, 그리고 『華東正音通釋韻考』의 漢字音, 이 세 종류의 漢字音を 반영하고 있으며 모두 10,840字의 漢字를 수록하고 있다.

『全韻玉篇』에 수록된 10,840字 중 당시 韓國 漢字音의 통용음을 반영한 것은 10,204字이고, 正·俗音의 형식으로 표기한 것은 636字¹⁾이다. 『全韻玉篇』은 대부분의 漢字가 당시 韓國 漢字音의 통용음을 반영하고 있어 근대 韓國 漢字音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全韻玉篇』의 正·俗音 표기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으며 관련 연구에는 이돈주(2002), 신용권(2016), 유재원(1996), 이준환(2004, 2006) 등 몇 편의 연구만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全韻玉篇』의 正·俗音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 俗音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고, 正音만을 연구한 논문은 이길경 외(2021)²⁾ 이외에 확인하기 어렵다. 이길경 외(2021)에서는 『全韻玉篇』

1) 『全韻玉篇』에서 正·俗音의 글자수에 대해 학자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 정경일(2008), 이승자(2003), 이돈주(1997)는 620여 字로 집계하였다. 본고는 세종대왕기념사업회에서 출판한 『全韻玉篇』(2003)을 기준으로 정리한 결과 10,840字 중 429字의 'X俗Y'음과 207字의 'X正Y'음 총 636字를 반영한 것을 바탕으로 기술하기로 한다. 세종대왕기념사업회, 『全韻玉篇』, 동화인쇄공사, 2003.

2) 이길경 외, 『『全韻玉篇』 漢字音의 正音 연구-牙·舌·脣音의 聲母를 중심으로-』, 『中國學研究』, 98집, 2021.

‘X正Y’에 해당하는 漢字 중 牙·舌·脣音에 속하는 漢字에 대한 고찰을 통해 『奎章全韻』의 規範音을 반영한 X음과 『華東正音通釋韻考』의 正音을 반영한 Y음의 표기 근원을 밝히고 나아가 X음과 Y음의 음운체계의 특징을 밝혔다. 본고는 이길경 외(2021)에서 다루지 않았던 『全韻玉篇』 ‘X正Y’에 해당하는 漢字 중 齒音에 속하는 漢字를 연구 대상으로 한다.

『全韻玉篇』에서 正音으로 표기된 漢字는 207字³⁾이며 ‘X正Y’의 형태로 표기되고 있다. 『全韻玉篇』 ‘X正Y’의 표기에서 X음은 『奎章全韻』의 規範音을 표기하고 Y음은 『華東正音通釋韻考』의 正音을 표기하고 있는데⁴⁾, 規範音과 正音은 일반적으로 중국 전통 韻書에서 반영한 漢字音의 等呼·開合·反切 등 음운체계에 부합하는 漢字音을 가리킨다. 『全韻玉篇』의 X음은 『奎章全韻』의 規範音을 반영하였으며 『奎章全韻』이 계승한 韻書의 계보를 시대의 역순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全韻玉篇』(1796?) X음 ← 『奎章全韻』(1796) ← 『三韻聲彙』(1751) ← 『四聲通解』(1517) ← 『洪武正韻』(1375) ← 『禮部韻略』(1037) ← 『廣韻』(1008)

『全韻玉篇』의 Y음은 『華東正音通釋韻考』의 正音을 반영하였으며 『華東正音通釋韻考』가 계승한 韻書의 계보를 시대의 역순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全韻玉篇』(1796?) Y음 ← 『華東正音通釋韻考』(1747) ← 『四聲通解』(1517) ← 『洪武正韻』(1375) ← 『禮部韻略』(1037) ← 『廣韻』(1008)⁵⁾

3) 본고는 세종대왕기념사업회(2003)의 『全韻玉篇』字例를 전수 조사하였다. 『全韻玉篇』에서 ‘X正Y’·‘X俗Y’·‘X正Y俗Y’에 해당하는 글자는 모두 636字이다. 그 중에서 ‘X俗Y’에 해당하는 글자는 428字이고 ‘X正Y’에 해당하는 글자는 207字이고 ‘X正Y俗Y’에 해당하는 글자는 1字이다. 본고에서 언급한 ‘207字’ 즉 ‘X正Y’에만 해당하는 전체 漢字의 통계는 본 논문 말미에 부록으로 제시한다.

4) 강신항, 『奎章全韻·全韻玉篇』, 박이정도서출판사, 1993, 4쪽.

5) 김민경, 『『四聲通解』의 한자음 연구 -관련 韻書와의 비교를 통하여-』, 제주대학교 중어

『全韻玉篇』 ‘X正Y’의 X음과 Y음이 계승한 韻書의 흐름에 대한 정리를 통해 『全韻玉篇』 ‘X正Y’에 대한 연구는 四聲七音을 바탕으로 한 漢語 中古音과의 비교를 전제로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본고는 『全韻玉篇』에서 ‘X正Y’로 표기된 漢字音 중 齒音에 속하는 漢字를 전수 조사하여 漢語 中古音과의 비교를 통해 음운 표기 근원에 대해 분석하고 각각의 음운체계 특징에 대해 면밀히 고찰하고자 한다. 『全韻玉篇』 ‘X正Y’의 齒音에 해당하는 글자를 淸音과 濁音으로 나누어 기술하기로 한다. 다만 편폭의 제한으로 본고는 齒音의 濁音 성모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2. 본론

본고는 『全韻玉篇』의 正音에 대한 면밀한 연구가 미흡한 점에 착안하여 『全韻玉篇』의 ‘X正Y’에 해당하는 漢字를 전수 조사하였으며 편폭의 제한으로 본고에서는 『全韻玉篇』에서 ‘X正Y’로 표기된 漢字 중 齒音 濁音 성모에 해당하는 漢字만을 연구 대상으로 한정한다. 『全韻玉篇』에서 ‘X正Y’로 표기된 漢字 중 齒音 濁音 성모에 속하는 漢字는 각각 從母·崇母·船母·邪母·禪母에 속해 모두 全濁字이며 次濁에 속하는 漢字는 확인할 수 없었다.

본고는 연구 대상이 되는 漢字를 從母·崇母·船母·邪母·禪母로 분류하여 표로 정리하였으며 해당 漢字의 漢語 中古音에서의 攝·開合·等呼·聲調·韻目·聲母·淸濁 및 추정음⁶⁾을 상세히 제시하여 비교·고찰하기로 한다.

이길경 외(2021)에서는 ‘X正Y’에 표기된 대부분의 漢字音은 漢語 어음체계와 음운변천 과정에 부합되는 구개음화 양상을 보이지만 일부 漢字音에서는

중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21, 136쪽.

6) 본고에서 제시된 IPA는 小學堂에 수록된 董同龢 추정음과 普通話 轉寫音을 사용하였다. 본고에서 기술하는 반절은 모두 『廣韻』의 반절이고 『廣韻』의 반절이 아닌 경우에만 별도로 제시하기로 한다.(小學堂 <https://xiaoxue.iis.sinica.edu.tw>)

한국 어음체계에서의 구개음화 영향을 받아 ‘XɕEY’의 어음 표기에 반영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

본고에서는 『全韻玉篇』의 ‘XɕEY’의 일부 漢字音에서 韓國 漢字音 어음체계의 영향이 반영되고 있으므로, 한국 음운체계와의 비교를 동시에 진행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본고는 韓國 漢字音의 規範音을 訓民正音으로 교정·정리한 최초의 韻書인 『東國正韻』의 표기음 및 現音⁷⁾에서의 漢字音을 함께 제시하여 통시적 고찰을 진행하고자 한다.

2.1. 全濁 從母(齒頭)

〈표 1〉 全濁 從母(齒頭)⁸⁾

字例	『東國正韻』	『全韻玉篇』	中古音			現音
			反切		董同龢	
楷	심/점	침正증	慈鹽	咸開三平鹽從全濁	dz ^h jem	심
潛	점	침正증	昨鹽	咸開三平鹽從全濁	dz ^h jæm	잠
蟹	·쪽	측正적	昨則	曾開一入德從全濁	dz ^h ək	적
嶺	쥬/	충正증	疾陵	曾開三平蒸從全濁	dz ^h jəŋ	증, 쟁
叢		체正체	才外	蟹合一去泰從全濁	dz ^h uai	체, 최, 절, 촬
鄣	쥬	충正증	疾陵	曾開三平蒸從全濁	dz ^h jəŋ	증
賊	·쪽	측正적	昨代	曾開一入德從全濁	dz ^h Ai	적
瘞	쥬	차正좌	昨禾	果合一平戈從全濁	dz ^h ua	좌
漬	·쥬	즈正지	疾智	止開三去寘從全濁	dz ^h je	지

〈표 1〉을 바탕으로 『全韻玉篇』 從母에 해당되는 성모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全韻玉篇』을 기준으로 漢語 中古音 從母에 해당하는 글자는 開口 一·三等과 合口 一等에 속하며, 모두 全濁字이다.

7) 본고에서의 現音은 한국 현대 漢字音을 가리킨다.

8) 본고에 제시된 표에서 『東國正韻』의 빈칸은 『全韻玉篇』 ‘XɕEY’로 표기된 漢字가 『東國正韻』에 수록되지 않은 경우이다.

〈표 1-1〉 從母 X음과 Y음의 초성

字例	X음 초성	Y음 초성	現音	字數
蟹, 賊, 漬	ㄷ	ㄷ	ㄷ	3
潛, 嶺, 鄣, 瘞	ㄸ	ㄷ	ㄷ	4
櫂	ㄸ	ㄷ	ㄷ	1
叢	ㄷ	ㄸ	ㄷ, ㄸ	1

〈표 1-1〉에서 ‘蟹, 賊, 漬’의 『奎章全韻』 規範音 X와 『華東正音通釋韻考』 正音 Y의 초성이 동일하고 現音도 이를 이어받은 것을 알 수 있다. ‘潛, 嶺, 鄣, 瘞’는 『奎章全韻』 規範音 X와 『華東正音通釋韻考』 正音 Y의 초성이 서로 다르며 現音의 초성은 모두 『華東正音通釋韻考』의 초성을 이어받은 것을 알 수 있다. ‘叢’는 『奎章全韻』의 規範音 X와 『華東正音通釋韻考』의 正音 Y의 초성이 서로 다르며 現音에서는 X음과 Y음의 초성을 모두 이어받은 것을 알 수 있다. ‘櫂’은 『奎章全韻』의 規範音 X와 『華東正音通釋韻考』의 正音 Y의 초성이 서로 다르며 現音의 초성은 이 두 음을 모두 이어받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櫂’은 『全韻玉篇』에서 ‘첨정즘’으로 표기되었는데 『集韻』에서 從母 才淫切인 어음 /dziem/과 船母 時任切인 어음 /dziem/을 확인할 수 있으며 從母와 船母는 모두 全濁 성모로 中古音에서 近代音으로 변하는 과정에서 濁音의 淸音化를 거친다. ‘櫂’은 從母와 船母에서 平聲字로 近代音에서 초성은 모두 유기음 ‘ㄷ’으로 표기된다. 그러므로 X음 ‘첨’은 全濁 從母와 船母에서의 어음이 淸音化된 어음을 표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X음 ‘첨’과 Y음 ‘즘’은 중성이 각각 ‘ㄷ’과 ‘ㅁ’으로 서로 달라 동일 어음을 유기음과 무기음의 구분 없이 표기한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櫂’은 形聲字로 聲符인 ‘瞢’은 淸母 七感切이며 추정음은 /tsʰAm/이므로 ‘櫂’의 『全韻玉篇』 Y음 ‘즘’은 聲符인 ‘瞢’의 어음을 유기음과 무기음의 구분 없이 표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潛’은 『全韻玉篇』에서 ‘첨정즘’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漢語 中古音에서 從母 昨鹽切인 어음 /dzhjæm/만 확인할 수 있다. ‘潛’은 ‘櫂’과 동일한 聲符 ‘瞢’를 가지고 있으므로 『全韻玉篇』에서 X음 ‘첨’은 全濁 從母에서 淸音化된 어음

을 표기하고 Y음 ‘즘’은 聲符 ‘贅’의 어음을 표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贅’은 『全韻玉篇』에서 ‘즉정적’으로 표기되었으며 ‘贅’은 漢語 中古音에서 曾攝 從母 昨則切인 어음 /dʒhək/만 확인할 수 있어 『全韻玉篇』에서 Y음 ‘적’은 이를 반영하여 표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贅’은 仄聲字이므로 濁音의 淸音化 과정을 거쳐 성모가 무기음 /tʃ/로 변한다. 또한 漢語 中古音에서 ‘贅’은 曾攝에 속하는데 김태경(2014)에 따르면 曾攝의 入聲 韻母는 /əʔ/, /iʔ/, /uəʔ/, /iuʔ/으로 추정된다. 운모 /iuʔ/에서 전설모음 /-i-/는 후행하는 후설모음 /-u-/의 영향으로 실제 어음에서 중설모음 /-i-/에 가깝게 발음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⁹⁾ 이는 『東國正韻』의 訓民正音 표기에서 ‘-’로 나타나 ‘贅’의 漢語 中古音 /dʒhək/이 韓國 漢字音 표기에서 『東國正韻』은 ‘쪽’으로, 『全韻玉篇』은 X음 ‘즉’으로 표기된 것으로 판단된다.

‘賊’은 『全韻玉篇』에서 ‘즉정적’으로 표기되었는데 漢語 中古音에서 曾攝 從母 昨則切인 어음 /dʒhək/ 이외에 又音 從母 昨代切인 어음 /dʒhAi/도 확인할 수 있다. ‘賊’은 상술한 ‘贅’과 攝·反切·‘X正Y’의 표기가 모두 동일하므로 『全韻玉篇』의 X음과 Y음의 표기와 관련하여 ‘贅’과 동일하게 볼 수 있다.

‘嶮, 郈’은 『全韻玉篇』에서 ‘중정중’으로 표기되었는데 漢語 中古音에서 從母 疾陵切인 어음 /dʒhʌŋ/을 확인할 수 있어 『全韻玉篇』에서 Y음 ‘중’은 이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嶮, 郈’은 모두 從母에 속하는 平聲字이므로 濁音의 淸音化 과정을 거쳐 성모가 모두 유기음 /tʃh/로 변하므로 『全韻玉篇』에서 X음 ‘중’은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瘞’는 『全韻玉篇』에서 ‘차정좌’로 표기되었는데 漢語 中古音에서 從母 昨禾切인 어음 /dʒhʌ/를 확인할 수 있어 『全韻玉篇』에서 Y음 ‘좌’는 이를 표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瘞’는 漢語 中古音에서 果攝에 해당된다. 김서영(2021)에 따르면 果攝의 운모는 『訓蒙字會』·『全韻玉篇』에서 ‘ㅏ’와 ‘ㅑ’로 혼용되어 표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a/와 /ua/의 주요원음이 모두 ‘ㅏ’이므로 韓國 漢字音에서 혼용되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¹⁰⁾ ‘瘞’는 漢語

9) 김태경, 『쉽게 배우는 중국어 음운학』, 學古房, 2014, 168쪽.

中古音에서 全濁 從母의 平聲字로 濁音의 清音化 과정에서 /dzʰ/>/tʃʰ/로 변하여 訓民正音에서 ‘츠’으로 반영된다. 그러므로 『全韻玉篇』에서 X음 ‘차’는 /dzʰua/가 濁音의 清音화된 것으로 판단한다.

‘叢’는 『全韻玉篇』에서 ‘제정체’로 표기되었는데 漢語 中古音에서 從母 才外切인 어음 /dzʰuai/를 확인할 수 있다. ‘叢’는 仄聲字이므로 濁音의 清音化 과정을 거쳐 성모가 무기음 /tʃ/로 변한다. ‘叢’는 漢語 中古音에서 蟹攝 泰韻에 속하며 開口 一等字이다. 王力(1985)에 따르면 泰韻은 漢語 中古音에서 近代音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開口는 哈·來韻으로, 合口는 灰·堆韻으로 분리된다.¹¹⁾ 王力은 漢語 近代音에서 灰·堆韻의 운모를 /uei/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는 訓民正音에서 ‘예’로 주음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全韻玉篇』에서 X음 ‘체’는 從母의 어음 /dzʰuai/가 濁音의 清音화된 어음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Y음 ‘체’는 從母의 어음 /dzʰuai/가 초성의 표기에서 유기음과 무기음의 구분 없이 표기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漬’는 『全韻玉篇』에서 ‘즈정지’로 표기되었는데 漢語 中古音에서는 從母 疾智切인 어음 /dzʰje/를 확인할 수 있다. ‘漬’는 仄聲字로 濁音의 清音化 과정을 거쳐 성모가 무기음 /tʃ/로 변한다. 또한 안재철(1993)에 따르면 『中原音韻』에서 止攝 開口 三等的 운모는 精系의 성모와 결합할 때 /i/로 받음된다.¹²⁾ /i/는 중설 고모음이고 訓民正音 ‘·’는 중설 중모음 /ə/와 가장 가깝게 받음되어 음성적인 측면에서 유사하게 청취될 수 있다. 이로 보아 『全韻玉篇』에서 Y음 ‘지’는 中古音에서의 어음 /dzʰje/를 반영하고 X음 ‘즈’는 近代音에서의 어음 /tʃi/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全韻玉篇』에서 全濁 從母에 해당하는 漢字의 ‘XZY’ 표기에서의 특징을

- 10) 김서영, 「『訓蒙字會』의 한자음 연구 -『東國正韻』·『全韻玉篇』과의 음운 비교를 통해-」, 제주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21, 180쪽.
- 11) 蟹攝韻部的分合值得注意。灰哈分爲兩部，哈韻和泰韻開口歸哈來，灰韻、廢韻和泰韻合口歸灰堆。佳皆合部，齊祭合部，和隋---中唐時代一樣。王力，『漢語語音史』，中國社會科學出版社，1985，257쪽.
- 12) 안재철, 「『韻略匯通』의 音價 推定 -『韻略易通』과의 비교를 통하여-」, 성균관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박사학위논문, 1993, 401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에 해당하는 漢字는 모두 9字인데 이 중 X음은 全濁從母를 모두 濁音의 淸音化된 어음으로 표기하고 있다. Y음에서는 漢語 中古音의 全濁從母를 그대로 반영하여 무기음 ‘ㄷ’으로 표기한 것이 5字, 又音 淸母의 어음을 표기한 것이 2字, 濁音의 淸音化된 어음을 표기한 것이 1字, 유기음과 무기음의 구분 없이 표기한 것이 1字이다. 이로 보아 全濁從母의 표기에서 X음은 모두 濁音의 淸音化된 어음을 표기한 것에 비해 Y음은 대체로 漢語 中古音에서 濁音의 어음을 표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2. 全濁 崇母(正齒 二等)

<표 2> 全濁 崇母(正齒 二等)

字例	『東國正韻』	『全韻玉篇』	中古音			現音
			反切		董同龢	
崇	쑹	종정승	鋤弓	通合三平東崇全濁	dʒʰjuŋ	승
倫	칭	칭정칭	助庚	梗開二平庚崇全濁	dʒʰeŋ	창
滌	·쑹/쑹	종정충	士絳	江開二去絳崇全濁	dʒʰɔŋ	충
牀	쌍	장정상	士莊	宕開三平陽崇全濁	dʒʰjaŋ	상
齟	:종/장	조정주	牀呂	遇開三上語崇全濁	dʒʰjo	저, 차
楂	쌍	차정사	鉏加	假開二平麻崇全濁	dʒʰa	사
床	쌍	장정상	士莊	宕開三平陽崇全濁	dʒʰjaŋ	상
譟	:짚/짚/췌	전정선	士免	山合三上獮崇全濁	dʒʰjuæn	선, 찬
巢	췌/췌	췌정소	鉏交	效開二平肴崇全濁	dʒʰau	소
窰		종정승	鋤弓	通合三平東崇全濁	dʒʰjuŋ	화, 승
愁	:췌/췌/췌	추정수	士尤	流開三平尤崇全濁	dʒʰju	수, 추
槎	쌍:/쌍	차정사	鉏加	假開二平麻崇全濁	dʒʰa	차, 사
蜡	·칭	자정사	七慮	假開二去禡崇全濁	dʒʰa	사, 저, 람(납)

<표 2>를 바탕으로 『全韻玉篇』崇母에 해당되는 성모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全韻玉篇』을 기준으로 漢語 中古音 崇母에 해당하는 글자는 開口 二·三等과 合口 三等에 속하며, 모두 全濁字이다.

〈표 2-1〉 崇母 X음과 Y음의 초성

字例	X음 초성	Y음 초성	現音	字數
崇, 牀, 床	ㄷ	ㄴ	ㄴ	3
儉	ㄷ	ㄷ	ㄷ	1
植, 巢	ㄷ	ㄴ	ㄴ	2
譟	ㄷ	ㄴ	ㄴ, ㄷ	1
宍	ㄷ	ㄴ	ㄴ, ㅎ	1
齟	ㄷ	ㄷ	ㄷ, ㄷ	1
愁, 槎	ㄷ	ㄴ	ㄷ, ㄴ	2
蜡	ㄷ	ㄴ	ㄷ, ㄴ, ㄹ(ㄴ)	1

〈표 2-1〉에서 ‘崇, 牀, 床, 儉, 植, 巢, 譟, 宍’은 『奎章全韻』의 規範音 X와 『華東正音通釋韻考』의 正音 Y의 초성이 서로 다르며 現音의 초성은 『華東正音通釋韻考』의 초성을 이어받은 것을 알 수 있다. ‘齟, 愁, 槎, 蜡’는 『奎章全韻』의 規範音 X와 『華東正音通釋韻考』의 正音 Y의 초성이 서로 다르며 現音에서는 X음과 Y음의 초성을 모두 이어받은 것을 알 수 있다.

‘崇’은 『全韻玉篇』에서 ‘중정승’으로 표기되었는데 漢語 中古音에서 崇母 鋤弓切인 어음 /dʒʰjuŋ/ 이외에 『集韻』에서 又音으로 心母 思融切인 어음 /siuŋ/도 확인할 수 있다. ‘崇’은 通攝에 속하는데 漢語 中古音 通攝 三等字의 중성은 韓國 漢字音에서 開口와 合口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ㄷ’·‘ㄴ’로 혼용되어 표기된다. 이로 보아 『全韻玉篇』에서 X음 ‘중’은 崇母의 어음 /dʒʰjuŋ/을 반영하고, Y음 ‘승’은 心母의 어음 /siuŋ/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通攝은 漢語 中古音에서 合口에 속하지만 『全韻玉篇』에서 X음 ‘중’은 通攝을 開口音으로 받아들이고 Y음 ‘승’에서는 通攝을 合口音으로 받아들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漢語 中古音 崇母에 속하는 漢字가 韓國 漢字音 초성에서 ‘ㄷ’, ‘ㄷ’, ‘ㄴ’이 혼용되어 표기되는 것과 연관 지어 생각해 볼 수도 있다.

‘譟’은 『全韻玉篇』에서 ‘전정선’으로 표기되었는데 漢語 中古音에서 崇母 士免切인 어음 /dʒʰjuæn/ 이외에 又音으로 心母 須究切인 어음 /siuæn/도 확인할 수 있다. 崇母는 全濁 성모로 濁音의 淸音化 과정에서 平聲字는 尤기음 /tʃ/로 仄聲字는 무기음 /t/로 변하는데 ‘譟’은 仄聲字이므로 『全韻玉篇』에서

X음 ‘견’은 崇母에 속하는 어음 /dʒʰjuæn/이 濁音의 淸音化된 어음을 반영하였거나 漢語 中古音에서의 어음을 반영했을 가능성을 모두 생각해 볼 수 있다. Y음 ‘선’은 心母에 속하는 어음 /siuæn/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儉’은 『全韻玉篇』에서 ‘정정칭’으로 표기되었는데 漢語 中古音에서 崇母 助庚切인 어음 /dʒʰɛŋ/을 확인할 수 있어 X음 ‘칭’은 이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儉’은 平聲字이므로 濁音의 淸音化 과정을 거쳐 성모가 유기음 /tʃ/로 변한다. 그러므로 『全韻玉篇』에서 Y음 ‘칭’은 崇母에서의 어음 /dʒʰɛŋ/이 濁音의 淸音化된 어음을 표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滌’은 『全韻玉篇』에서 ‘중정충’으로 표기되었는데 漢語 中古音에서 江攝 崇母 士絳切인 어음 /dʒʰɔŋ/만 확인할 수 있다. 江攝의 글자는 韓國 漢字音에서 中·중성이 대부분 ‘상’으로 표기되며 일부 ‘냥’으로 표기되기도 하지만 ‘능’으로 표기될 가능성은 없으므로 『全韻玉篇』의 X음 ‘중’이 崇母에 속하는 어음 /dʒʰɔŋ/을 표기했을 가능성은 배제된다. ‘滌’의 異體字 ‘淙’은 漢語 中古音에서 通攝 全濁 從母 藏宗切인 어음 /dzʰuɔŋ/을 확인할 수 있다. 全濁 從母는 濁音의 淸音化 과정에서 平聲字는 유기음 /tʃ/로 仄聲字는 무기음 /tʃ/로 변하는데 ‘淙’은 平聲字이므로 濁音의 淸音化 과정을 거쳐 성모가 유기음 /tʃ/로 변한다. 또한 異體字 ‘淙’은 通攝에 속하는데 상술한 바와 같이 漢語 中古音의 通攝은 韓國 漢字音에서 中성 ‘ㄱ’와 ‘ㄷ’, ‘ㄲ’와 ‘ㄸ’로 혼용되어 표기되므로 『全韻玉篇』에서 Y음 ‘충’은 異體字 ‘淙’의 漢語 中古音이 濁音의 淸音化된 어음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된다. 『全韻玉篇』의 X음 ‘중’은 異體字 ‘淙’의 漢語 中古音에서의 어음 /dzʰuɔŋ/을 표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床’과 ‘牀’은 『全韻玉篇』에서 ‘장정상’으로 표기되었는데 漢語 中古音에서 崇母 士莊切인 어음 /dʒʰjaŋ/을 확인할 수 있다. ‘床’과 ‘牀’은 모두 平聲字이므로 濁音의 淸音化된 과정을 거쳐 성모가 유기음 /tʃ/으로 변한다. ‘床’과 ‘牀’의 『全韻玉篇』 ‘X正Y’의 표기에서 초성이 각각 무기음 ‘ㄷ’과 ‘ㅅ’으로 나타나므로 濁音의 淸音化된 어음을 반영했을 가능성은 배제한다. 漢語 中古音의 崇母는 韓國 漢字音의 초성 표기에서 ‘ㄷ’, ‘ㄸ’, ‘ㅅ’이 혼용되어 나타나고 있으

므로 X음과 Y음의 초성이 ‘ㅈ’과 ‘ㅅ’으로 나타난 것은 이와 연관 지어 생각할 수 있다. 또한 ‘床’과 ‘牀’은 漢語 中古音에서 모두 宕攝에 속하므로 訓民正音에서 중·종성은 ‘강’으로 표기할 수 있다. 『全韻玉篇』에서 X음 ‘장’은 漢語 中古音에서의 어음 /dʒʰaŋ/을 반영하고 Y음 ‘상’은 漢語 中古音 崇母를 韓國 漢字音 초성에서 ‘ㅈ’, ‘ㅊ’, ‘ㅅ’을 혼용하여 표기한 것과 연관 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齟’는 『全韻玉篇』에서 ‘조정주’로 표기되었는데 漢語 中古音에서 崇母 牀 呂切인 어음 /dʒʰjo/만 확인할 수 있다. ‘齟’는 漢語 中古音에서 仄聲字에 속하므로 성모가 濁音의 淸音化를 거쳐 무기음 /tʃ/로 변한다. 또한 ‘齟’는 漢語 中古音에서 遇攝 開口 三等 語韻에 속하는데 語韻은 中古音에서 近代音에 이르기까지 /io/·/jo/ > /iu/의 변화과정을 거치며 주요모음이 /o/와 /u/이므로 韓國 漢字音에서 중성 ‘ㄱ’과 ‘ㄷ’로 표기될 수 있다. 그러므로 『全韻玉篇』에서 X음 ‘조’는 漢語 中古音에서의 어음 /dʒʰjo/를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Y음 ‘주’는 漢語 中古音 이후의 어음을 반영하고 이때 Y음에서 표기된 초성 ‘ㅈ’은 漢語 中古音 崇母가 濁音의 淸音化된 어음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植’와 ‘槎’는 『全韻玉篇』에서 ‘차정사’로 표기되었는데 漢語 中古音에서 모두 崇母 鉏加切인 어음 /dʒʰa/만 확인할 수 있다. ‘植’와 ‘槎’는 모두 平聲字이므로 濁音의 淸音化 과정을 거쳐 성모가 유기음 /tʃʰ/로 변한다. 그러므로 『全韻玉篇』에서 X음 ‘차’는 崇母에 속하는 어음 /dʒʰa/가 濁音의 淸音化된 어음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崇母에 해당하는 글자의 초성은 『訓蒙字會』·『全韻玉篇』에서 대부분 ‘ㅅ’, ‘ㅊ’, ‘ㅈ’이 혼용되어 나타나므로 『全韻玉篇』에서 Y음 ‘사’는 이와 연관 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巢’는 『全韻玉篇』에서 ‘초정소’로 표기되었는데 漢語 中古音에서 崇母 士 稍切인 어음 /dʒʰau/를 확인할 수 있다. ‘巢’는 平聲字이므로 濁音의 淸音化 과정을 거쳐 성모가 유기음 /tʃʰ/로 변한다. 또한 ‘巢’는 效攝에 속하는데 『東國正韻』에서 漢語 中古音 效攝의 운모는 ‘ㄴ’과 ‘ㄹ’로 표기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¹³⁾ ‘뫼’는 『東國正韻』 이후의 韓國 漢字音을 표기에서 소실되어 『訓蒙字

會』·『全韻玉篇』에서 效攝의 운모는 ‘ㄱ’와 ‘ㄲ’로 표기되므로 『全韻玉篇』에서 X음과 Y음의 중성이 각각 ‘ㄲ’와 ‘ㄱ’로 표기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로 보아 『全韻玉篇』에서 X음 ‘쇼’는 崇母에 속하는 어음 /dʒʰau/가 濁音의 淸音化된 어음을 표기한 것으로 판단되고 Y음 ‘소’는 崇母에 속하는 韓國 漢字音 초성이 ‘ㄷ’, ‘ㄸ’, ‘ㅅ’으로 혼용되어 표기되는 것과 연관 지어 생각할 수 있다.

‘審’은 『全韻玉篇』에서 ‘중정승’으로 표기되었는데 漢語 中古音에서 通攝 崇母 鋤弓切인 어음 /dʒʰjuŋ/만 확인할 수 있다. 상술한 ‘崇’과 마찬가지로 ‘審’은 漢語 中古音 通攝에 속하므로 韓國 漢字音 표기에서 開口와 合口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全韻玉篇』에서 X음 ‘중’은 漢語 中古音의 어음 /dʒʰjuŋ/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다. ‘審’의 異體字는 ‘崇’이며 ‘崇’은 漢語 中古音에서 崇母 鋤弓切인 어음 /dʒʰjuŋ/ 이외에 又音으로 心母 思融切인 어음 /siuŋ/도 확인할 수 있어 『全韻玉篇』에서 Y음 ‘승’은 異體字 ‘崇’의 心母에서의 어음 /siuŋ/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다. 또한 漢語 中古音 崇母에 속하는 漢字가 韓國 漢字音 초성에서 ‘ㄷ’, ‘ㄸ’, ‘ㅅ’이 혼용되어 표기되는 것과 연관 지어 생각해 볼 수도 있다.

‘愁’는 『全韻玉篇』에서 ‘추정수’로 표기되었는데 漢語 中古音에서 崇母 士尤切인 어음 /dʒʰju/을 확인할 수 있다. ‘愁’는 平聲字이므로 濁音의 淸音化 과정을 거쳐 성모가 유기음 /tʃʰ/로 변한다. /tʃʰ/는 설첨 중음으로 이와 결합되는 운모에서 전설성이 강한 /i/·/j/가 탈락되어 운모가 단운모인 /u/로 변한다. 이로 보아 『全韻玉篇』에서 X음 ‘추’는 崇母에 속하는 어음 /dʒʰju/이 濁音의 淸音化된 어음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漢語 中古音의 崇母는 韓國 漢字音의 초성 표기에서 ‘ㄷ’, ‘ㄸ’, ‘ㅅ’으로 혼용하여 표기되므로 『全韻玉篇』에서 Y음의 초성이 ‘ㅅ’인 것은 이와 연관 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蜡’는 『全韻玉篇』에서 ‘자정사’로 표기되었는데 漢語 中古音에서 崇母 鋤駕切인 어음 /dʒʰa/를 확인할 수 있다. ‘蜡’는 仄聲字이므로 濁音의 淸音化 과

13) 김민경, 「『四聲通解』의 한자음 연구 -관련 韻書와의 비교를 통하여-」, 제주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21, 108쪽.

정을 거쳐 성모가 무기음 /tʃ/로 변한다. 그러므로 『全韻玉篇』에서 X음 ‘자’는 崇母에 속하는 어음 /dʒʰa/가 濁音의 淸音化된 어음을 반영했거나 漢語 中古音의 어음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漢語 中古音 崇母는 韓國 漢字音의 초성 표기에서 ‘ㄗ’, ‘ㅈ’, ‘ㅊ’으로 혼용하여 표기되었으므로 『全韻玉篇』에서 Y음의 초성이 ‘ㅊ’인 것은 이와 연관 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全韻玉篇』에서 全濁 崇母에 해당하는 漢字의 ‘XY’ 표기에서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에 해당하는 漢字는 모두 13字인데 이 중 X음에서 全濁 崇母를 漢語 中古音으로 표기한 것은 9字이고 濁音의 淸音化된 어음을 표기한 것은 4字이다. Y음에서 全濁 崇母를 濁音의 淸音化된 어음으로 표기한 것은 3字이고 나머지 10字는 모두 마찰음 ‘ㅊ’으로 표기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로 보아 全濁 崇母의 표기에서 X음은 대체로 漢語 中古音을 표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Y음은 대체로 全濁 崇母를 마찰음 ‘ㅊ’으로 표기하고 있어 표기 근원에 대해 추후 면밀한 고찰이 필요하다.

2.3. 全濁 船母(正齒 二等)

〈표 3〉 全濁 船母(正齒 二等)

字例	『東國正韻』	『全韻玉篇』	中古音			現音
			反切		董同龢	
尤	·뽕/궤	술正출	食聿	臻合三入術船全濁	dzʰjuet	출
駮	궤	증正승	食陵	曾開三平蒸船全濁	dzʰjəŋ	승
秣	·궤	술正출	食聿	臻合三入術船全濁	dzʰjuet	출
鞮		속正촉	殊玉	通合三入燭船全濁	dzʰiok	촉, 독
蠲	·속	속正촉	樞玉	通合三入燭船全濁	dzʰiok	촉
膾		증正승	神陵	曾開三平蒸船全濁	dzʰieŋ	증, 승

〈표 3〉을 바탕으로 『全韻玉篇』 船母에 해당되는 성모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全韻玉篇』을 기준으로 漢語 中古音 船母에 해당하는 글자는 開口 三等과 合口 三等에 속하며, 모두 全濁字이다.

〈표 3-1〉 船母 X음과 Y음의 초성

字例	X음 초성	Y음 초성	現音	字數
尢, 穉, 蝟	入	ㄸ	ㄸ	3
駮	ㄸ	入	入	1
膾	ㄸ	入	ㄸ, 入	1
鞞	入	ㄸ	ㄸ, ㄷ	1

〈표 3-1〉에서 ‘尢, 穉, 蝟, 駮, 鞞’은 『奎章全韻』의 規範音 X와 『華東正音通釋韻考』의 正音 Y의 초성이 서로 다르며 現音의 초성은 『華東正音通釋韻考』의 초성을 이어받은 것을 알 수 있다. ‘膾’은 『奎章全韻』의 規範音 X와 『華東正音通釋韻考』의 正音 Y의 초성이 서로 다르며 現音에서는 X음과 Y음의 초성을 모두 이어받은 것을 알 수 있다.

‘尢’은 『全韻玉篇』에서 ‘술正출’로 표기되었는데 漢語 中古音에서 船母 食聿切인 어음 /dzʰjuet/ 이외에 澄母 直律切인 어음 /dʰjuet/도 확인할 수 있다. 全濁 船母는 濁音의 淸音化 과정에서 平聲字는 유기음 /tʃ/와 무기음 /ʃ/로 변하고 仄聲字는 무기음 /ʃ/로 변하는데,¹⁴⁾ ‘尢’의 船母에 해당하는 어음은 仄聲字이며 성모가 /ʃ/로 변한다. 그러므로 『全韻玉篇』에서 X음 ‘술’은 船母의 濁音의 淸音化된 어음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全濁 澄母는 中古音에서 近代音에 이르면서 濁音의 淸音化를 거쳐 平聲字는 /tʃ/로, 仄聲字는 /tʃ/로 변하는데 ‘尢’의 澄母에서의 어음은 仄聲字이므로 濁音의 淸音化를 거쳐 성모가 /tʃ/로 변한다. 그러므로 『全韻玉篇』에서 Y음 ‘출’은 澄母에 속하는 어음이 濁音의 淸音化를 거친 후 韓國 漢字音 초성에서 유기음과 무기음의 구분 없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穉’은 『全韻玉篇』에서 ‘술正출’로 표기되었는데 漢語 中古音에서 船母 食聿切인 어음 /dzʰjuet/만 확인할 수 있다. ‘穉’은 漢語 中古音에서 仄聲字로 濁音의 淸音化 과정을 거쳐 성모가 무기음 /ʃ/로 변한다. 그러므로 『全韻玉篇』

14) 董同龢著, 孔在錫譯, 『漢語音韻學』, 汎學圖書, 1975, 218-219쪽.

에서 X음 ‘술’은 船母의 어음 /dz^hjuet/이 濁音의 淸音化된 어음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秫’은 形聲字로 聲符는 ‘尢’이다. 『全韻玉篇』에서 Y음 ‘출’의 표기 근원은 聲符인 ‘尢’의 어음과 연관 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駮’은 『全韻玉篇』에서 ‘증정승’으로 표기되었는데 漢語 中古音에서 船母 食陵切인 어음 /dz^hjaŋ/을 확인할 수 있다. ‘駮’은 船母 平聲字인데 상술한 바와 같이 漢語 中古音 船母는 濁音의 淸音化를 거쳐 유기음 /t^ʃ/와 /ʃ/로 변하므로 『全韻玉篇』에서 X음 ‘증’과 Y음 ‘승’은 모두 船母에 속하는 어음 /dz^hjaŋ/이 濁音의 淸音化된 어음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鞞’은 『全韻玉篇』에서 ‘속정축’으로 표기되었는데 漢語 中古音에서 船母인 어음을 확인할 수 있다. 全濁 船母에 해당하는 漢字는 濁音의 淸音化 과정을 거쳐 平聲字는 유기음 /t^ʃ/와 무기음 /ʃ/로, 仄聲字는 무기음 /ʃ/로 변하는데 ‘鞞’은 仄聲字이므로 무기음 /ʃ/로 변할 수 있다. 그러므로 『全韻玉篇』에서 X음 ‘속’은 船母의 어음이 濁音의 淸音化된 어음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鞞’의 異體字로 ‘鞞’을 확인할 수 있는데 ‘鞞’은 漢語 中古音에서 章母 之欲切인 어음 /tɕjuok/을 확인할 수 있다. 章母는 韓國 漢字音의 초성 표기에서 ‘ㄷ’과 ‘ㅈ’으로 혼용되어 표기될 수 있어 『全韻玉篇』에서 Y음 ‘축’은 異體字 ‘鞞’의 어음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蠟’은 『全韻玉篇』에서 ‘속정축’으로 표기되었는데 『集韻』에서 ‘蠟’은 船母 殊玉切인 어음 /dz^hiook/ 이외에 又音으로 昌母 樞玉切인 어음 /tɕ^hiook/도 확인할 수 있어 『全韻玉篇』에서 X음 ‘속’은 船母의 어음이 濁音의 淸音化된 어음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고 Y음 ‘축’은 昌母에 속하는 어음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臚’은 『全韻玉篇』에서 ‘증정승’으로 표기되었는데 漢語 中古音에서 船母 神陵切인 어음 /dz^hieŋ/을 확인할 수 있다. ‘臚’은 船母의 平聲字이므로 濁音의 淸音化를 거쳐 성모가 유기음 /t^ʃ/과 무기음 /ʃ/로 변할 수 있으므로 韓國 漢字音 초성에서 ‘ㄷ’과 ‘ㅈ’으로 표기될 수 있다. 그러나 ‘臚’의 『全韻玉篇』 X음에서 초성이 ‘ㄷ’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는 韓國 漢字音 초성 표기에서 ‘ㄷ’

과 ‘ㄷ’이 자주 혼용되어 표기되는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X음 ‘증’은 漢語 中古音을 그대로 반영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臚’의 『全韻玉篇』에서 Y음 ‘승’은 船母에서의 어음 /dzʰieŋ/이 濁音의 淸音化된 어음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全韻玉篇』에서 全濁 船母에 해당하는 漢字의 ‘XEY’ 표기에서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에 해당하는 漢字는 모두 6字인데 이 중 X음은 모두 全濁 船母의 濁音의 淸音化된 어음을 표기하고 있다.¹⁵⁾ Y음에서 2字는 全濁 船母의 濁音의 淸音化된 어음을 표기하고 2字는 又音과 聲符의 濁音의 淸音化된 어음을 표기하고 2字는 異體字와 又音의 어음을 표기하고 있다. 이로 보아 全濁 船母의 표기에서 X음은 모두 濁音의 淸音化된 어음을 표기하고 있어 규칙적이지만 Y음은 X음의 표기에 비해 다양한 양상을 보여 규칙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2.4. 全濁 邪母(齒頭)

<표 4> 全濁 邪母(齒頭)

字例	『東國正韻』	『全韻玉篇』	中古音			現音
			反切		董同龢	
兇	: 兇	스正시	徐姊	止開三上旨邪全濁	zjei	시
涎	원	선正연	夕連	山開三平仙邪全濁	zjæŋ	연
次		선正연	夕連	山開三平仙邪全濁	zjæŋ	연

<표 4>를 바탕으로 『全韻玉篇』 邪母에 해당되는 성모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5) ‘臚’의 X음 ‘증’은 漢語 中古音을 그대로 반영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본고는 全濁 船母의 濁音의 淸音化된 어음을 유기음과 무기음을 구분 없이 표기했을 가능성이 더욱 큰 것으로 판단한다. 全濁 船母에 해당하는 6字 중 5字가 모두 濁音의 淸音化된 어음을 표기하고 있으며 『全韻玉篇』 ‘XEY’의 표기에서 X음의 표기가 대체로 규칙적이므로 위와 같이 판단한다.

『全韻玉篇』을 기준으로 漢語 中古音 邪母에 해당하는 글자는 開口 三等에 속하며, 모두 全濁字이다.

〈표 4-1〉 邪母 X음과 Y음의 초성

字例	X음 초성	Y음 초성	現音	字數
兕	ㅅ	ㅅ	ㅅ	1
涎, 次	ㅅ	ㅇ	ㅇ	2

〈표 4-1〉에서 ‘兕’는 『奎章全韻』의 規範音 X와 『華東正音通釋韻考』의 正音 Y의 초성이 동일하고 現音도 이를 이어받은 것을 알 수 있다. ‘涎, 次’는 『奎章全韻』의 規範音 X와 『華東正音通釋韻考』의 正音 Y의 초성이 서로 다르며 現音의 초성은 모두 『華東正音通釋韻考』의 초성을 이어받은 것을 알 수 있다.

‘兕’는 『全韻玉篇』에서 ‘스正시’로 표기되었는데 漢語 中古音에서 邪母 徐姊切인 어음 /zjei/를 확인할 수 있다. 김서영(2021)¹⁶에 따르면 『東國正韻』의 ‘ㅇ’는 『訓蒙字會』·『全韻玉篇』에서 ‘·’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全濁 邪母는 濁音의 淸音化 과정을 거쳐 平聲字와 仄聲字는 모두 마찰음 /s/로 변하므로 『全韻玉篇』에서 X음과 Y음의 초성이 모두 ‘ㅅ’으로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兕’는 漢語 中古音에서의 추정음이 /zjei/이므로 주요원음이 중설모음 /e/이다. /e/는 韓國 漢字音 표기에서 중성 ‘·’로 반영될 수 있다. ‘兕’의 漢語 中古音에서의 운모는 止攝 旨部이다. 王力(1985)에 따르면 旨部 開口 三等的 추정음은 /jei>/i/의 과정을 거치므로¹⁷ 『全韻玉篇』에서 X음과 Y음의 중성이 각각 ‘·’와 ‘|’로 표기된 것은 이와 연관된 것으로 판단된다.

16) 『東國正韻』의 ‘ㅇ’는 『訓蒙字會』·『全韻玉篇』에서 대체로 ‘·’로 주음되지만, ‘司’는 『訓蒙字會』에서 ‘卜’로 주음되고, 『全韻玉篇』에서 ‘·’로 주음된다. 김서영(2021), 『『訓蒙字會』의 한자음 연구 -『東國正韻』·『全韻玉篇』과의 음운 비교를 통해-, 제주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21, 171쪽.

17) 王力(1985)에 따르면 脂部[ei] 開口 三等は 魏晉南北朝韻部에서 [jei]로 표기되고 있고 隋·中唐時代의韻部에서 脂部 開口 三等は [i]로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王力, 『漢語語音史』,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5, 123-203쪽.

‘涎’은 『全韻玉篇』에서 ‘선정연’으로 표기되었는데 漢語 中古音에서 邪母 夕連切인 어음 /zjæŋ/ 이외에 又音으로 以母 予線切에 속하는 어음 /Ojæŋ/도 확인할 수 있다. 全濁 邪母는 濁音의 淸音化 과정에서 平聲字와 仄聲字가 모두 /s/로 변하므로 『全韻玉篇』에서 X음 ‘선’은 邪母에서의 어음 /zjæŋ/이 濁音의 淸音化된 어음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全韻玉篇』에서 Y음 ‘연’은 以母에 속하는 어음 /Ojæŋ/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次’은 『全韻玉篇』에서 ‘선정연’으로 표기되었는데, ‘次’은 漢語 中古音에서 邪母 夕連切인 어음 /zjæŋ/만 확인할 수 있다. ‘次’은 ‘涎’의 異體字로 『全韻玉篇』에서 ‘X正Y’의 표기가 ‘涎’과 동일하므로 X음과 Y음의 표기 근원에 대해 상술한 ‘涎’과 마찬가지로 판단된다.

『全韻玉篇』에서 全濁 邪母에 해당하는 漢字의 ‘X正Y’ 표기에서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에 해당하는 漢字는 모두 3字인데 이 중 X음은 모두 全濁 邪母의 濁音의 淸音化된 어음을 반영하여 마찰음 ‘스’로 표기하고 있다. Y음에서 全濁 邪母를 마찰음 ‘스’로 표기한 것은 1字이며 그 외의 2字는 又音의 어음을 표기하고 있다. 이로 보아 全濁 邪母의 표기에서 X음은 일률적으로 濁音의 淸音化된 어음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규칙적이고 Y음은 불규칙적으로 다양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5. 全濁 禪母(正齒 三等)

<표 5> 全濁 禪母(正齒 三等)

字例	『東國正韻』	『全韻玉篇』	中古音			現音
			反切		董同龢	
忱	침	심정침	氏任	深開三平侵禪全濁	zjem	침, 심
敷		슈정슈	市流	流開三平尤禪全濁	zju	미상
蜀	·속	속정속	市玉	通合三入燭禪全濁	zjuok	속

<표 5>를 바탕으로 『全韻玉篇』 禪母에 해당되는 성모의 특징은 다음과 같

다.

『全韻玉篇』을 기준으로 漢語 中古音 禪母에 해당하는 글자는 開口 三等과 合口 三等에 속하며, 모두 全濁字이다.

〈표 5-1〉 禪母 X음과 Y음의 초성

字例	X음 초성	Y음 초성	現音	字數
蜀	ʃ	ʃ	ʃ	1
忱	ʃ	ʃ	ʃ, ʃ	1
敷	ʃ	ʃ	미상	1

〈표 5-1〉에서 ‘蜀’은 『奎章全韻』의 規範音 X와 『華東正音通釋韻考』의 正音 Y의 초성이 서로 다르며 現音의 초성은 『華東正音通釋韻考』의 초성을 이어받은 것을 알 수 있다. ‘忱’은 『奎章全韻』의 規範音 X와 『華東正音通釋韻考』의 正音 Y의 초성이 서로 다르며 現音에서는 X음과 Y음의 초성을 모두 이어 받은 것을 알 수 있다. ‘敷’는 『奎章全韻』의 規範音 X와 『華東正音通釋韻考』의 正音 Y의 초성이 서로 다르며 現音에 대해서는 찾을 수 없어 기술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忱’은 『全韻玉篇』에서 ‘심정침’으로 표기되었는데 漢語 中古音에서 禪母 氏任切인 어음 /zjem/을 확인할 수 있다. 全濁 禪母는 濁音의 淸音化 과정을 거쳐 平聲字는 /tʃ/·/ʃ/로 되고 仄聲字는 /ʃ/로 변한다. ‘忱’은 平聲字이므로 濁音의 淸音化 과정을 거쳐 성모가 /tʃ/·/ʃ/로 변하여 『全韻玉篇』에서 X음과 Y음의 초성이 각각 ‘ʃ’과 ‘ʃ’으로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忱’은 漢語 中古音 深攝 侵部에 속하는데 侵部의 운모는 隋唐 시대로부터 元대에 이르기까지 /jəm/ > /im/의 과정을 거친다.¹⁸⁾ 이로 보아 『全韻玉篇』에서 X음과 Y음의 중·종성이 모두 ‘김’으로 표기된 것은 近代音을 반영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18) 王力(1985)에 따르면 侵部는 先秦·西漢·東漢·南北朝·隋唐까지 여전히 /jəm/으로 표기되었으나 五代·宋·元에 이르러 /im/으로 변하였음을 알 수 있다. 王力, 『漢語語音史』,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5, 523쪽.

‘敷’는 『全韻玉篇』에서 ‘슈正츄’로 표기되었는데 漢語 中古音에서 禪母 市流切인 어음 /zju/를 확인할 수 있다. ‘敷’는 平聲字이므로 濁音의 淸音化 과정을 거쳐 성모가 /tʃʰ/·/ʃ/로 변한다. 그러므로 『全韻玉篇』에서 X음 ‘슈’와 Y음 ‘츄’는 모두 全濁 禪母의 어음 /zju/가 濁音의 淸音化된 어음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된다.

‘蜀’은 『全韻玉篇』에서 ‘속正축’으로 표기되었는데 漢語 中古音에서 禪母 市玉切인 어음 /zjuok/을 확인할 수 있다. ‘蜀’은 仄聲字이므로 濁音의 淸音化를 거쳐 성모가 /ʃ/로 변하므로 『全韻玉篇』에서 X음 ‘속’은 이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全韻玉篇』에서 Y음 ‘축’에 대해 면밀한 고찰이 필요하다. ‘蜀’은 ‘蜀’의 諧聲字인데 ‘蜀’은 漢語 中古音에서 昌母 樞玉切인 어음 /tʃhiok/을 확인할 수 있어 『全韻玉篇』에서 Y음 ‘축’은 이와 연관 지어 생각해 볼 수도 있다.

『全韻玉篇』에서 全濁 禪母에 해당하는 漢字의 ‘XEY’ 표기에서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에 해당하는 漢字는 모두 3字인데 이 중 X음은 모두 全濁 禪母의 濁音의 淸音化된 어음을 반영하여 마찰음 ‘ㅅ’으로 표기하고 있다. Y음은 모두 유기음 ‘ㅈ’으로 표기하고 있는데 이 중 2字는 濁音의 淸音化된 어음을 표기하고 1字는 諧聲字의 어음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된다. X음은 全濁 禪母를 모두 마찰음 ‘ㅅ’으로 표기하고 Y음은 모두 유기음 ‘ㅈ’으로 표기하고 있어 분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3. 결론

본고는 『全韻玉篇』에서 ‘XEY’로 표기된 漢字 중 四聲七音의 齒音 濁音 성모에 속하는 漢字를 전수 조사하여 해당 漢字의 X음과 Y음의 표기 근원에 대해 분석하고 각각의 음운체계에 대한 연구결과를 아래와 같이 정리한다.

첫째, 『全韻玉篇』에서 ‘XEY’에 해당하는 漢字가 現音의 초성에서 대부분

『華東正音通釋韻考』의 正音 Y의 초성을 이어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現音의 초성이 『奎章全韻』의 規範音 X와 『華東正音通釋韻考』의 正音 Y의 초성을 모두 이어받은 漢字音도 일부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외 現音의 초성이 『奎章全韻』의 規範音 X의 초성을 이어받은 것도 일부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全韻玉篇』에서 'X正Y'에 해당하는 漢字의 성모 중 齒音 全濁에 속하는 것은 從母·崇母·船母·邪母·禪母만 확인할 수 있었다.

全濁 從母에 해당하는 漢字의 'X正Y'의 표기에서 X음은 모두 濁音의 淸音化된 어음을 반영하고 Y음은 대체로 中古音을 반영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X음이 일률적으로 濁音의 淸音化된 어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X음이 반영한 어음의 음운체계에서 全濁 從母의 濁音의 淸音化는 이미 완성 단계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全濁 崇母에 해당하는 漢字의 'X正Y'의 표기에서 X음은 中古音과 濁音의 淸音化된 어음을 모두 반영하여 초성 표기에서 무기음 'ㄷ'과 유기음 'ㄷ'으로 표기하고 있다. X음이 中古音과 濁音의 淸音化된 어음을 모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X음이 반영한 어음의 음운체계에서 全濁 崇母의 濁音의 淸音化는 과도기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Y음은 대체로 마찰음 'ㅅ'으로 표기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全濁 船母와 邪母에 해당하는 漢字의 'X正Y'의 표기는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X음은 모두 濁音의 淸音化된 어음을 표기하고 Y음은 又音, 聲符, 異體字의 어음과 濁音의 淸音化된 어음을 반영하고 있어 X음의 표기에 비해 규칙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船母와 邪母의 X음이 일률적으로 濁音의 淸音化된 어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X음이 반영한 어음의 음운체계에서 全濁 船母와 邪母의 濁音의 淸音化는 이미 완성 단계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全濁 禪母에 해당하는 漢字의 'X正Y'의 표기에서 X음은 모두 마찰음 'ㅅ'으로 표기되고 Y음은 모두 유기음 'ㄷ'으로 표기되어 명확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全濁 禪母는 濁音의 淸音化 과정을 거쳐 平聲字는 /tʃʰ/·/ʃ/로 되고 仄聲字는 /ʃ/로 변하므로 X음에서 표기한 'ㅅ'과 Y음에서 표기한 'ㄷ'은 모두 全濁

禪母의 濁音의 淸音化된 어음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다만 全濁 禪母에 해당하는 3字 중 Y음에서 ‘ㄷ’으로 표기된 2字는 濁音의 淸音化된 어음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고 1字는 諧聲字의 어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全濁 禪母의 X음이 일률적으로 濁音의 淸音化된 어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X음이 반영한 어음의 음운체계에서 全濁 禪母의 濁音의 淸音化는 이미 완성 단계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全韻玉篇』에서 ‘X正Y’로 표기된 漢字 중 全濁 성모에 해당하는 漢字의 표기에서 崇母를 제외한 從母, 船母, 邪母, 禪母에 해당하는 漢字의 X음은 모두 濁音의 淸音化된 어음을 반영하고 있어 X음이 반영한 어음의 음운체계에서 해당 성모가 濁音의 淸音化가 이미 완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全濁 崇母에 해당하는 漢字의 X음은 濁音의 淸音化 전과 후의 어음을 모두 반영하고 있어 全濁 崇母의 濁音의 淸音化는 과도기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X음에서 崇母를 제외한 全濁 성모가 모두 濁音의 淸音化된 어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매우 규칙적임을 알 수 있으며 이를 통해 『全韻玉篇』의 X음에 반영된 『奎章全韻』의 規範音이 체계성을 갖추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X음은 濁音의 淸音化를 표기하는 규칙성을 보이는 것에 비해 Y음은 又音·聲符·異體字·諧聲字·中古音을 표기하는 다양성을 보여 규칙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Y음에 반영된 『華東正韻通釋韻考』의 正音은 『奎章全韻』 規範音의 표기에 비해 체계성이 상대적으로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비추어질 수 있으나 『華東正韻通釋韻考』는 華音과 東音을 동시에 표기하고 있어 『全韻玉篇』에서 Y음 표기의 다양성은 이와 연관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參考文獻

- 강신항, 『奎章全韻 全韻玉篇』, 박이정도서출판사, 1993.
- 김태경, 『쉽게 배우는 중국어 음운학』, 學古房, 2014.
- 김민경, 「『四聲通解』의 한자음 연구 -관련 韻書와의 비교를 통하여-」, 제주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21.
- 김서영, 「『訓蒙字會』의 한자음 연구 -『東國正韻』·『全韻玉篇』과의 비교를 통해-」, 제주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21.
- 김은희 외, 「『全韻玉篇』에 나타난 정·속음의 성격 고찰 上」, 중국언어연구 제86집, 2020.
- 김은희 외, 「『全韻玉篇』에 나타난 正·俗音의 성격 고찰 下」, 동남어문논집 제49집, 2020.
- 朴性源 撰, 『화동정음통석운고(華東正音通釋韻考)』, 藏書閣, 1747(영조 23년).
- 안재철, 「『韻略匯通』의 음가 추정 -『韻略易通』과의 비교를 통하여-」, 성균관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박사학위논문, 1994.
- 이길경 외, 「『全韻玉篇』 漢字音의 正音 연구-牙·舌·脣音의 聲母를 중심으로-」, 『中國學研究』, 98집, 2021.
- 이돈주, 「『화동정음통석운고』의 정속음과 전운옥편 한자음의 비교 고찰」, 한글(249), 한글학회, 2000.
- 이돈주, 「한국한자음 중 속음에 정음성에 대하여-전운옥편의 정·속음 표시를 대상으로」, 한국언어문학 第48輯, 한국언어문학회, 2002.
- 이돈주, 「『全韻玉篇』의 正·俗 漢字音에 대한 연구」, 국어학 30집, 1997.
- 세종대왕기념사업회, 『全韻玉篇』, 동화인쇄공사, 2003.
- 정경일, 『奎章全韻·全韻玉篇』, 신구문화사, 2008.
- 王力, 『漢語語音史』,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5.
- 董同龢著/孔在錫譯, 『漢語音韻學』, 汎學圖書, 1975.
- 小學堂 <https://xiaoxue.iis.sinica.edu.tw/yanbian?kaiOrder>
- 漢典 <https://www.zdic.net/>

Abstract

A study of the dental consonants of the Chinese characters in the Jeon-un
okpyun

- The consonants with full voiced sound -

Li Jiqiong · Kim, Eun Hee · Kim, Seo Yeong · An Yingshi · Liu Tingting

This paper examined the pronunciations of X and Y in the Jeon Un-okpyeon "X Jeong Y" through a comparison between the middle and high notes of Korean, based on the four-sound and seven-tone. Due to the limitations of space This paper Among the Chinese characters marked as "X Jeong Y," only the Chinese characters belonging to the four-sound and seven-tone were examined. It was possible to check the readings of the Chinese characters corresponding to full-voiced sounds among the Chinese characters indicated in the Jeon Un-okpyeon "X Jeong Y". All the X sounds of Chinese characters corresponding to jong-mo, seon-mo, sa-mo, and seon-mo reflect voicing, but sueng-mo is excluded from the notation. Thus, it was possible to estimate that the devoicing of the latter consonants had already proceeded to completion in the phonological system of the text, as reflected in the fact that the X notes and Y notes showed extensive diversity, with indications via polyphonic characters, phonetic notation, heterogeneous characters, harmonic characters, and Chinese characters, indicating a lack of systematicity.

Key Words : Jeongeum of Jeon-un okpyun, Jeongeum, Normative sound, Voiced sound, Clear tone

투 고 일 : 2022. 1. 10. / 심 사 일 : 2022. 1. 15.~ 2022. 2. 15. / 게재확정일 : 2022. 2. 20.

부록: 『全韻玉篇』에서 'XIEY'에 해당하는 207字的 漢字表

字例	『東國正韻』	『全韻玉篇』	中古音			普通話	現音
			反切		董同龢		
課	술/쑤	화正과	古火	果合一上果見全清	kua	kuo ³	과
輜		화正과	古禾	果合一平戈見全清	kua	kuo ³	과
騙	꺽	괘正왜	古蛙	蟹合二平佳見全清	kuei	kua ¹	왜, 왜, 와, 과
媯	꺽	괘正왜	古蛙	蟹合二平佳見全清	kuei	ua ¹	왜, 와, 과
獅	꺽	계正제	居例	蟹開三去祭見全清	kjæi	tʂu ⁴	제, 계
絃		기正히	侯楷	蟹開一平哈見全清	kAi	kai ¹	해
媯	꺽, 꺽, 꺽	과正와	古蛙	蟹合二平佳見全清	kuei	uo ¹	와
愬		갈正갈	居拜	蟹開二去怪見全清	kæt	teiA ⁴	갈
躑	꺽/꺽	곽正각	居縛	宕合三入藥見全清	kjuak	teye ²	곽
泊	꺽/꺽	기正계	几利	止開三去至見全清	kjɛi	tei ⁴	계
邉	꺽	괴正기	居偽	止合三去寘見全清	*kiue	kuei ³	귀
晷	꺽	괘正귀	居洵	止合三上旨見全清	kjuɛi	kuei ³	귀
擱	꺽	괘正꺽	古獲	梗合二入麥見全清	kuzæk	kuo ²	꺽
擱	꺽/꺽	괘正꺽	古獲	梗合二入麥見全清	kuzæk	kuo ²	꺽
脛		관正완	古滿	山合一上緩見全清	kuan	uan ³	완
鞞	꺽/꺽	구正루	俱遇	遇合三去遇見全清	kio	lou ²	루(누)
茁	꺽/꺽/꺽	굴正줄	厥律	臻合三入質見全清	kiuet	tʂuo ²	줄
筮		후正구	苦候	流開一去候溪次清	kʰu	kʰou ⁴	구
捰	꺽	꺽正꺽	口莖	梗開二平耕溪次清	kʰæŋ	kʰæŋ ¹	꺽
屹	꺽	꺽正꺽	苦骨	臻合一入沒溪次清	kʰuət	kʰu ²	꺽, 꺽
敵	꺽/꺽	교正고	口交	效開二平肴溪次清	kʰau	teʰiau ¹	고, 교
怡	꺽/꺽	꺽正꺽	苦洽	咸開二入洽溪次清	kʰɛp	teʰia ²	꺽, 꺽
誣	꺽	꺽正꺽	口莖	梗開二平耕溪次清	kʰæŋ	kʰæŋ ¹	꺽
枯	꺽	고正구	苦胡	遇合一平模溪次清	kʰuo	kʰu ¹	고
輪	꺽	꺽正꺽	五歷	梗開四入錫疑次濁	ŋiek	i ²	꺽
虐	꺽	꺽正꺽	魚約	宕開三入藥疑次濁	ŋjak	nye ²	꺽
鷓	꺽	꺽正꺽	五歷	梗開四入錫疑次濁	ŋiek	i ⁴	꺽
瘡	꺽	꺽正꺽	魚約	宕開三入藥疑次濁	ŋjak	nye ²	꺽
耽	꺽	꺽正꺽	丁舍	咸開一平覃端全清	tAm	tan ¹	꺽
醜	꺽/꺽	꺽正꺽	丁舍	咸開一平覃端全清	tAm	tan ¹	꺽, 꺽
洮	꺽/꺽	도正도	土刀	效開一平豪透次清	tʰau	tʰau ¹	도, 조
鞋	꺽	두正두	天口	流開一上厚透次清	tʰu	tʰou ³	주
涖		톤正꺽	他昆	臻合一平魂透次清	tʰuən	tʰuən ¹	꺽
鏡	꺽	꺽正꺽	吐郎	宕開一平唐透次清	tʰaŋ	tʰaŋ ¹	꺽
斟		두正두	天口	流開一上厚透次清	tʰu	tʰou ³	주
緜		토正도	土皓	效開一上皓透次清	tʰau	tao ³	도
通	꺽/꺽/꺽	둔正둔	徒損	臻合一上混定全濁	dʰuən	tuən ³	둔, 준
觸	꺽	꺽正꺽	徒谷	通合一入屋定全濁	dʰuk	tu ²	꺽, 꺽
掉	꺽/꺽	도正도	徒了	效開四上篠定全濁	dʰieu	tiau ³	도
枕	꺽/꺽	꺽正꺽	徒舍	咸開一平覃定全濁	dʰAm	tan ¹	꺽, 꺽
凸	꺽	꺽正꺽	陀骨	臻合一入沒定全濁	dʰuət	tʰu ²	꺽
播	꺽	꺽正꺽	徒結	山開四入屑定全濁	dʰiɛt	tj ⁴	꺽, 꺽, 꺽

擗		녁正녁	奴歷	梗開四入錫泥次濁	niek	ni ⁴	녁(역), 녑(역)
軫	:견	년正년	乃珍	山開四上銑泥次濁	nien	nian ³	견, 년, 진, 천
軫		경正경	中莖	梗開二平耕知全清	tæŋ	tʂæŋ ¹	경, 탕
獠	·룽/·똥/·룽	조正료	張絞	效開二上巧知全清	t̚au	lau ³	료, 요
慣	·딩	지正치	陟利	止開三去至知全清	tjei	tʂi ⁴	치
迤	·똥	준正둔	陟綸	臻合三平諄知全清	tjuen	tʂuan ¹	둔
窳	·똥	준正둔	陟綸	臻合三平諄知全清	tjuen	tʂuan ¹	둔
規	·똥/·똥	첩正점	丑廉	咸開三平鹽微次清	tʰjæm	tʂʰæm ¹	점
僂		정正등	丑升	曾開三平蒸微次清	tʰjæŋ	tʂʰæŋ ¹	등, 중
僚	·텡	체正제	丑例	蟹開三去祭微次清	tʰjæi	tʂʰi ⁴	제
闌	·똥	침正츰	丑禁	深開三去沁微次清	tʰjem	tʂʰæn ⁴	츰, 츄
橙	·등, ·똥	정正중	宅耕	梗開二平耕澄全濁	dʰæŋ	tʂʰæŋ ²	등
擗	·낙/·닉	낙正낙	女角	江開二入覺娘次濁	nək	nuo ⁴	낙(역)
諺	·녕	녀正위	女恚	止合三去寘娘次濁	njue	uei ³	위
粘	·똥/·똥	똥正똥	女廉	咸開三平鹽娘次濁	njæm	tʂan ¹ .niam ²	똥
趁	:년/·똥	진, 년正년	尼展	山開三上獮娘次濁	njæm	nian ³	진, 년(연)
躔	:똥/·똥/·년	년正년	尼展	山開三上獮娘次濁	njæm	nian ³	진
命	·룬	롄正륜	力迤	臻合三平諄來次濁	ljuen	luan ²	륜(윤)
荔	·렝	리正례	力智	止開三去寘來次濁	lje	li ⁴	려(여)
訶	·캉/·랑	라正가	來可	果開一上嚩來次濁	la	luo ³	라(나), 가
淚		류正위	力遂	止合三去至來次濁	ljuei	lei ⁴	루(누), 러(여)
膠	·룽	로正료	魯刀	效開一平豪來次濁	lau	lau ²	료(요)
崙		룬正륜	盧昆	臻合一平魂來次濁	luan	luan ²	륜(윤)
樞	:똥	뤼正위	魯回	蟹合一平灰來次濁	luAi	lei ²	뤼(뇌)
備	:똥	뤼正위	魯回	蟹合一平灰來次濁	luAi	lei ²	뤼(뇌)
輪	·룬	룬正륜	盧昆	臻合一平魂來次濁	luan	luan ²	륜(윤)
北	·북/·똥	패正벽	博墨	曾開一入德幫全清	pæk	pei ³	북, 배
編	:똥	변正편	方典	山開四上銑幫全清	pjen	pian ³	편
蝠	·꺽	벽正꺽	芳逼	曾開三入職滂次清	pʰjæk	pi ⁴	꺽, 꺽
蝠	·꺽	벽正꺽	芳逼	曾開三入職滂次清	pʰjæk	pi ⁴	꺽, 꺽
捕	·똥	포正부	普胡	遇合一平模滂次清	pʰuo	pʰu ¹	부, 보, 박
棚	·똥	꺽正꺽	薄庚	梗開二平庚並全濁	bʰæŋ	pʰæŋ ²	꺽
膈	·똥	꺽正꺽	符逼	曾開三入職並全濁	bʰjæk	pi ⁴	꺽
蝠	·똥	꺽正꺽	符逼	曾開三入職並全濁	bʰjæk	pi ⁴	꺽, 꺽
復	·똥	꺽正꺽	符逼	曾開三入職並全濁	bʰjæk	pi ⁴	꺽, 꺽
復	·똥	꺽正꺽	符逼	曾開三入職並全濁	bʰjæk	pi ⁴	꺽
溥	·똥	보正부	滂古	遇合一上姥滂次清	pʰuo	pʰu ¹	부
駝		망正방	莫江	江開二平江明次濁	mɔŋ	maŋ ²	방
盟	·똥/·똥	명正똥	武兵	梗開三平庚明次濁	mjeŋ	maŋ ²	똥
姆	·똥/·똥	모正무	莫候	流開一去候明次濁	mu	mu ³	모, 무
嗚	·똥	망正방	莫江	江開二平江明次濁	mɔŋ	maŋ ²	방
樞	·똥	모正무	莫胡	遇合一平模明次濁	muo	mo ²	모, 무
老	·똥	망正방	莫江	江開二平江明次濁	mɔŋ	maŋ ²	방, 봉
鏘	:똥/·똥	모正무	莫補	遇合一上姥明次濁	muo	mu ³	똥
彪	·똥	망正방	莫江	江開二平江明次濁	mɔŋ	maŋ ²	방
偏	·똥	꺽正꺽俗꺽	方六	通合三入屋非全清	pjuk	fu ⁴	꺽, 북, 꺽

絕	·꺄/꺄	제正체	子芮	蟹合三去祭精全清	tsjuæi	tɛyɛ²	절
鵠	경	경正청	子盈	梗開三平清精全清	tsjɛŋ	teiŋ¹	청
啐	·꺄	꺄正쉬	子對	蟹合一去隊精全清	tsuAi	tsuei⁴	수
蜻	경	경正청	子盈	梗開三平清精全清	tsjɛŋ	teiŋ¹	청
縱	중/중	중正중	即容	通合三平鍾精全清	tsjuoŋ	tsʰuŋ¹	중
臙		전正전	則前	山開四平先精全清	tsien	teian	전
戩		전正전	作甸	山開四去霰精全清	tsien	teian	전, 찬
靦	전	전正전	將先	山開四平先精全清	tsen	teien¹	전
決	·꺄	꺄正협	子協	咸開四入帖精全清	tsjep	teia¹	협
鯽	·꺄/꺄	꺄正꺄	資昔	梗開三入昔精全清	tsjek	tei⁴	꺄, 꺄
僭	·꺄/꺄/꺄	꺄正꺄	子念	咸開四去禡精全清	tsiem	teian⁴	꺄
殲	꺄	꺄正꺄	子廉	咸開三平鹽精全清	tsjæm	teian¹	꺄
漣	꺄/꺄	꺄正소	子了	效開四上筱精全清	tsɛu	tsʰau²	소
檐	꺄	꺄正꺄	子廉	咸開三平鹽精全清	tsjem	teian¹	꺄
曾	중/중	중正중	作滕	曾開一平登精全清	tsəŋ	tsəŋ¹	중
僕	꺄/꺄/꺄	꺄正선	士免	山合三上獮崇全濁	dʒʰjuæn	tsuan⁴	선, 꺄
渣		차正사	側加	假開二平麻莊全清	tʃa	tʃa	사
樞	꺄	꺄正치	側持	止開三平之莊全清	tʃi	tsɿ¹	치
稱	·꺄	꺄正작	側角	江開二入覺莊全清	tʃɔk	tsʰuo¹	꺄, 꺄
租	:중/장	차正사	側加	假開二平麻莊全清	tʃa	tʃa¹	사, 조
詐	·꺄	꺄正사	側駕	假開二去禡莊全清	tʃa	tʃa⁴	사
楨	·꺄	꺄正꺄	側鳩	流開三平尤莊全清	tʃju	tsou¹	꺄, 수
楨	꺄	차正사	側加	假開二平麻莊全清	tʃa	tʃa¹	사
彰	꺄	꺄正꺄	諸良	宕開三平陽章全清	tejaŋ	tsəŋ¹	꺄
攄	·꺄	꺄正치	脂利	止開三去至章全清	tejei	tsɿ¹⁴	치
諄	꺄/꺄	꺄正순	章倫	臻合三平諄章全清	tejuen	tsuan¹	순
讖		꺄正꺄	之廉	咸開三平鹽章全清	teiam	*tʃʌŋ	꺄
覽	·꺄/꺄	꺄正꺄	之日	臻開三入質章全清	tejet	tsɿ¹⁴	꺄
炤	·꺄/꺄/꺄	꺄正쇼	之少	效開三去笑章全清	tejəu	tsʰau⁴	소, 조
釗	꺄	꺄正소	古堯	效開三平宵章全清	kieu	tsʰau¹	쇠, 소
譴		꺄正꺄	之廉	咸開三入盍章全清	teap	tsʰan¹	꺄
沁	·꺄	꺄正심	七鳩	深開三去沁清次清	tsʰjem	teʰin⁴	심
焯	·꺄	꺄正쉬	七內	蟹合一去隊清次清	tsʰuAi	tsʰuei⁴	쉬
淬	·꺄	꺄正쉬	七內	蟹合一去隊清次清	tsʰuAi	tsʰuei⁴	쉬, 꺄
倅	·꺄/꺄	꺄正쉬	七內	蟹合一去隊清次清	tsʰuAi	tsʰuei⁴	쉬, 꺄
泚	:중/꺄	꺄正꺄	雌氏	止開三上紙清次清	tsʰje	tsʰɿ²	꺄, 꺄
璣		중正중	七恭	通合三平鍾清次清	tsʰjuoŋ	tsʰuŋ	중
扱		꺄正꺄	楚洽	咸開二入洽初次清	tʃʰɛp	tsʰa	꺄, 꺄, 꺄
鏗	:꺄/꺄/꺄	꺄正꺄	初限	山開二上產初次清	tʃʰæŋ	tsʰan³	꺄, 꺄
羸	·꺄	꺄正꺄	初六	通合三入屋初次清	tʃʰjuk	tsʰu⁴	꺄
劑		꺄正꺄	楚限	山開二上產初次清	tʃʰæŋ	tsʰʌn³	꺄, 꺄
藩	:꺄	꺄正심	昌枕	深開三上寢昌次清	teʰjem	ʃən²	심
隼	꺄	꺄正꺄	赤周	流開三平尤昌次清	teʰju	tsʰou¹	꺄
佔	꺄/꺄	꺄正꺄	蚩占	咸開三平鹽昌次清	teʰiam	tian	꺄, 꺄
浚	·꺄	꺄正꺄	私閏	臻合三去稔心全清	sjuen	teyn⁴	꺄

						eyn ⁴	
竣	·순	순正준	私閏	臻合三去稔心全清	sjuen	teyn ⁴	준
隼	·순	순正준	思尹	臻合三上準心全清	sjuen	suən ³	준
酥	·송	소正수	素姑	遇合一平模心全清	suo	su ¹	소, 수
稍	·술/·솔	소正소	所教	效開二去效生全清	ʃau	ʃau ¹	초, 소
雙	·쌍	상正쌍	所江	江開二平江生全清	ʃɔŋ	ʃuap ¹	쌍
懷	·쌍	상正쌍	所江	江開二平江生全清	ʃɔŋ	suŋ ²	승, 쌍
率	·솔/·솔/·률/·형/·형	솔正솔	所律	止合三去至生全清	ʃjuet	ʃuai ⁴	솔, 률, 수
蟀	·솔	솔正솔	所律	臻合三入質生全清	ʃjuet	ʃuai ⁴	솔,
鸛	·쌍	상正쌍	所江	江開二平江生全清	ʃɔŋ	ʃuap ¹	쌍
棟		식正속	蘇谷	梗開二入麥生全清	ʃæk	sy ⁴	속, 축, 석
苫	·침/·섬/·섬	섬正침	舒瞻	咸開三去豔書全清	cjæm	ʃan ⁴	침, 침, 섬
櫛	·섬/·섬	침正침	慈鹽	咸開三平鹽從全濁	*dz ^h jem	te ^h iæn	섬
潛	·침	침正침	昨鹽	咸開三平鹽從全濁	dz ^h jem	te ^h ian ²	잠
蟄	·적	적正적	昨則	曾開一入德從全濁	dz ^h ək	tsei	적
嶒	·정	정正정	疾陵	曾開三平蒸從全濁	dz ^h jeŋ	ts ^h əŋ ²	정, 정
叢		제正체	才外	蟹合一去泰從全濁	dz ^h uai	tsuei	체, 최, 점, 환
鄙	·정	정正정	疾陵	曾開三平蒸從全濁	dz ^h jeŋ	tsəŋ ¹	정
賊	·적	적正적	昨代	曾開一入德從全濁	dz ^h ai	tsei ²	적
座	·좌	차正좌	昨禾	果合一平戈從全濁	dz ^h ua	ts ^h uo ²	좌
漬	·지	지正지	疾智	止開三去寘從全濁	dz ^h je	ts ¹ ⁴	지
崇	·성	성正성	鋤弓	通合三平東崇全濁	dʒ ^h juŋ	ts ^h uŋ ²	성
僮	·성	성正성	助庚	梗開二平庚崇全濁	dʒ ^h jeŋ	ts ^h əŋ ¹	성
滌	·정/·정	정正정	士絳	江開二去絳崇全濁	dʒ ^h jeŋ	ts ^h uap ⁴	정
牀	·정	정正정	士莊	宕開三平陽崇全濁	dʒ ^h jeŋ	ts ^h uap ²	정
齟	·정/·정	정正정	牀呂	遇開三上語崇全濁	dʒ ^h je	tey ³	정, 차
植	·정	차正차	鉏加	假開二平麻崇全濁	dʒ ^h a	ts ^h a ²	차
床	·정	정正정	士莊	宕開三平陽崇全濁	dʒ ^h jeŋ	ts ^h uap ²	정
讓	·정/·정/·정	정正정	士免	山合三上彌崇全濁	dʒ ^h juæn	ts ^h uan ⁴	정, 칸
巢	·정/·정	정正정	鉏交	效開二平肴崇全濁	dʒ ^h au	ts ^h au ²	정
窰		정正정	鋤弓	通合三平東崇全濁	dʒ ^h juŋ	ts ^h uŋ	화, 정
愁	·정/·정/·정	정正정	士尤	流開三平尤崇全濁	dʒ ^h ju	ts ^h ou ²	정, 추
槎	·정/·정	차正차	鉏加	假開二平麻崇全濁	dʒ ^h a	ts ^h a ²	차, 차
蜡	·정	차正차	七慮	假開二去禡崇全濁	dʒ ^h a	te ^h y ⁴	차, 정, 략(납)
尢	·정/·정	정正정	食聿	臻合三入術船全濁	dz ^h juet	ʃu ²	정
驟	·정	정正정	食陵	曾開三平蒸船全濁	dz ^h jeŋ	ts ^h əŋ ²	정
秣	·정	정正정	食聿	臻合三入術船全濁	dz ^h juet	ʃu ²	정
鞮		속正속	殊玉	通合三入燭船全濁	dz ^h iok	du ²	정, 독
蠲	·정	정正정	樞玉	通合三入燭船全濁	dz ^h iok	tsu ²	정
臚		정正정	神陵	曾開三平蒸船全濁	dz ^h ieŋ	ts ^h əŋ ²	정, 정

兇	:슁	수正시	徐姊	止開三上旨邪全濁	zjei	si ⁴	시
涎	꺾	선正연	夕連	山開三平仙邪全濁	zjæn	cian ²	연
次		선正연	夕連	山開三平仙邪全濁	zjæn	cian ²	연
忱	심	심正침	氏任	深開三平侵禪全濁	zjem	ts ^h ən ²	침, 심
敷		슈正츄	市流	流開三平尤禪全濁	zju	ts ^h ou ²	
蜀	·쑤	속正속	市玉	通合三入燭禪全濁	zjuok	su ³	속
蛙	·퐁	유正계	烏攜	蟹合四平齊影全清	?iuei	uei ¹	계, 유
幹	:관, ·꺾	관正간	烏括	山合一入未影全清	?uat	uo	알, 간
蒼	·꺾	외正회	烏外	蟹合一去空影全清	?uai	xuei ⁴	회
熏		원正훈	況袁	山合三平元曉次清	xjuen	eyn	훈
垣	원	원正훈	況袁	山合三平元曉次清	xjuen	eyn ¹	훈
隴	·학	학正학	呵各	宕開一入鐸曉次清	xak	xuo ²	학, 회, 화
濊	·꺾/·꺾/꺾	외正회	呼會	蟹合一去泰曉次清	xuai	xuei ⁴	예, 외, 회, 활
狻	·꺾	혈正월	許月	山合三入月曉次清	xjuet	eye ²	월, 혈
獮		함正협	胡忝	咸開四上添匣全濁	ɣiem	cian	협
羸		회正의	胡罪	蟹合一上賄匣全濁	ɣuAi	xuei	의
涸	·꺾/꺾	호正후	下各	宕開一入鐸匣全濁	ɣak	xy ²	후, 학
鹿	:꺾	회正의	胡罪	蟹合一上賄匣全濁	ɣuAi	xuei ⁴	외, 괴, 회
狎	·꺾	합正압	胡甲	咸開二入狎匣全濁	ɣap	cia ²	압, 합
莞	관/꺾	환正완	胡官	山合一平桓匣全濁	ɣuan	kuan ¹	완, 관, 환
澆	:꺾	환正완	胡管	山合一上緩匣全濁	ɣuan	xuan ³	완, 관
皓	:꺾/꺾	고正호	胡老	效開一上皓匣全濁	ɣau	xau ³	호
蹠	:꺾	화正과	胡瓦	假合二上馬匣全濁	ɣua	xuai ³	과
奔	·역	역正혁	羊益	梗開三入昔以次濁	Ojek	i ²	혁
霽	·꺾	울正홀	餘律	臻合三入術以次濁	Ojuet	y ²	홀, 울
鶴	·꺾	울正홀	餘律	臻合三入術以次濁	Ojuet	y ²	홀
通	·꺾	울正홀	餘律	臻合三入術以次濁	Ojuet	y ²	홀
枵	:영	잉正영	以整	梗開三上靜以次濁	Ojɛŋ	iŋ ³	영
颺	·꺾/꺾	울正울	于貴	止合三去未云次濁	ɣjuəi	uei ⁴	위, 울
嶸	꺾	꺾正영	永兵	梗合三平庚云次濁	ɣjuɛŋ	zuŋ ²	영, 꺾
彙	·꺾	위正꺾	于貴	止合三去未云次濁	ɣjuəi	xuei ⁴	꺾
藹	꺾	꺾正위	韋委	止合三上紙云次濁	ɣjuɛ	xua	위, 꺾
移	잉/꺾	세正테	弋支	止開三平支以次濁	Oje	i ²	체, 이
鋌	션	선正연	以然	山開三平仙以次濁	Ojæn	ts ^h an ²	연
沾	·꺾/꺾	염正꺾	余廉	咸開三平鹽以次濁	Ojæm	tian ⁴	꺾, 꺾
餘	꺾/꺾	저正여	以諸	遇開三平魚以次濁	Ojo	y ²	서, 여